

농어촌公 전남본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품질 UP! 디자인 UP!

머니투데이 | 전남=나요안 기자

2025.04.04 10: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410143925481&type=1>

기사주소 복사

| 올해 166지구 1482억 사업 추진...지역개발 품질 향상 순회 교육 실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품질향상 순회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전남본부가 이달 한 달간 총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 농어촌 공간을 정비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른다.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공사 전남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 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公 전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더 완벽하게

2025-04-04 11:23 광주CBS 조시영 기자 |

'지역개발 품질향상 순회 교육'으로 품질 향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4월 한 달간 총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4월 한 달간 총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김재식 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319588>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더 완벽하게" 농 어촌공사 순회교육



박영래 기자

2025.04.04 오전 10:3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4월 한달간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농어촌공사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4월 한 달간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 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4일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 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지역개발 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742665>

농어촌공사, 올해 전남 지역개발사업 166 곳..."1482억 투입"

등록 2025.04.04 10:28:54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4월 한 달간 공사감독 13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 교육을 추진한다. (사진=전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에 온 힘을 쏟는다.

올해 전남권역 지역개발사업은 1482억원 규모로 166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4월 한 달간 공사감독 13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 교육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읍·면 소재지 거점 지역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사업의 핵심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4월 한 달간 공사감독 13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 교육을 추진한다. (사진=전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품질 향상 순회 교육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시공 사례 중심의 체험형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한다.

무엇보다 시공 경험이 많은 선배를 강사진으로 참여시켜 완벽 시공 비결을 전수함으로써 현장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 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역개발사업 역량 강화 순회 교육 실시

✎ 한민식 기자 | Ⓞ 승인 2025.04.04 14:4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4월 한 달간 총 130여 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 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민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어촌 지역개발' 현장 순회교육

다경험 직원 강사진, 경험에 기초한 노하우 전수 등

2025년 04월 04일 (금) 오후 05시 40분 15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현장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회교육은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 등 지역개발사업 전 분야를 포함하며, 시공 사례 중심의 내용과 체험형 실습 등 실효성 있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맞도록 공사감독자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개발 품질향상 교육 단체사진 [사진=농어촌공사 전남]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 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동석 기자 jds155@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 현장 순회 교육

이정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4-04 12:1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4월 한 달간 총 130여 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식 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농어촌공사 전남, 지역개발사업 품질 향상 '현장 순회 교육' 추진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4.04 10:16

복합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3일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4월 한 달간 총 130여 명의 공사 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창식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품질 높다"

✎ 정운석 기자 | ㉠ 승인 2025.04.04 17:11

올해 166지구 1482억원 추진...4월 130여명 공사감독 교육 실시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 한 달간 총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사진=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 한 달간 총 130여 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운석 기자 hkilbokj@hanmail.net

농어촌공 전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더 완벽하게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4.04 13:15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4월 한 달간 총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전남권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와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의 농어촌 공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166지구 1,482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시공 사례 중심의 이해와 체험형 실습 등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노하우를 초급 공사감독에게 전수함으로써 공사감독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본부장은 “시공 현장에서의 품질은 공사감독이 가져야 할 역량중에 안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곧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기에 본부가 지역개발전문기관의 명성에 걸맞도록 공사감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